

제2363호 2019. 6. 30.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들어 올려질’ 길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구리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들어 올리시길 길입니다. 그러한 길 위에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길을 향한 부르심, 사도 바오로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한 자유를 향한 부르심이라 알려줍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기 위한 자유가 아닌,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자신을 거부함에 불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거부합니다.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려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루카 9,54)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제자의 삶을 향한 부르심은 거부와 불만, 불평의 모습으로 생겨난 불뱀처럼 서로를 물어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받아 들여지는 회복과 환대를 향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복음은 항상 뒤를 돌아보게 하는 자신의 조건을 먼저 내세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집트를 향해 계속 돌아서며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던 것처럼,(민수 21,5) 조건을 먼저 앞세우는 응답은 부르심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평함으로써 후회하거나 자기 뜻을 채우기 위한 욕망에 빠져 버립니다. 그 안에서 따르는 삶은 자기 뜻으로만 붙잡는 삶으로 변해 버리며,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삶으로 걸어가게 되어 버립니다.

그 삶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만들며 붙잡으려는 조건을 내려놓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쟁기를 부수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고기를 구웠듯이, 따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스스로의 조건을 부수고 그 위에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한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따름이 자기 뜻만을 먼저 내밀면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시문 시몬 신부 | 교현본당 보좌

주일 진례

입 당 송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본 기 도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제 1 독 서 1열왕 19,16ㄴ,19-21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제 뭇의 유산이시옵니다.

제 2 독 서 갈라 5,13-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 음 루카 9,51-62

영 성 체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당나귀왕자 메시아4.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진레와 신앙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친구하십시오. / 당신이 도깨비여도 괜찮아요. 난 동키라고 해요. 난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 담벼락을 쌓겠다는 건 세상과 인연 끊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뭔가 비밀이 있죠? /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지. 나! 나! 나!!! 맨날 나 구박하고 모욕주고. 잘해줘도 생전 고마워하는 법도
없고. 눈만 뜨면 꺼져라, 사라져라. 그래도 친구니까 쫓아다니는 거죠. (영화, 슈렉)

슈렉에게는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떼어내기가 힘듭니다. 타인들의 시선이 붙인 딱지, 누가 뭐라든 상관없다 큰소리치지만, 세상과 벽을 쌓고 스스로 외롭게 살려 합니다. 그런 ‘이방인’ 슈렉을 낙인찍지 않고 다가간 유일한 존재가 수다쟁이 당나귀 동키입니다.

“제발 나한테 신경 끄고 네 살길이나 찾아!”

계속 다가서며 자신의 마음 속을 알아내려는 동키에게 슈렉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키는, 제 살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나. 너. 우리. 우리나라...

우리를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살길은, 나만의 살길을 구하는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살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만의 살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와 너를 지우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나와 너가 함께하여 우리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로 살아야 세상답다는 것이 하느님의 법칙입니다. 너를 깔아 뭉개 이기고 나만이 살려 할 때, 내 살길은 점점 흐려 집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루카 10,36)

세상은 우리를 만드는 수련을 하는, 도량입니다.

성산복지관 2019 여름김장 나누기

지난해 기부에 동참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올해도 건강한 여름 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에 있는 이웃,
가족이 있으나 돌봄을 받지 못해 힘든 이웃,
무더위로 인해 입맛까지 나지 않아 건강이 염려되는 우리 이웃을 위해
여름 김장을 합니다.

지역주민이 거들어 만원의 행복으로 건강한 여름을 찾아주세요.

단기모금기간 : 7. 12.(금) 까지

후원 계좌 : 경남 580-07-0011610 성산복지관 (입금시 김장+성함)

※ 후원시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권) / 문 의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 푸른군대 봉사자 피정



교구 푸른군대(담당: 박호철 요한 신부, 회장: 서명숙 마리아)는 6월 16-17일 지리산 피아골에서 봉사자 피정을 가졌다. 27명의 봉사자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반성하였고, 성모님의 뜻대로 세상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다.

NEWS

● 신비로운 장미 브레시디움 2000차 주회



거제성당(주임: 이강현 베드로 신부) 신비로운 장미 브레시디움이 6월 4일 2000차 주회를 가졌다. 신비로운 장미 단원들은 주로 직장인들로 구성되었지만 전례봉사와 성모회 등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이웃 돕기 실천을 소홀히 하지 않고 생활화하고자 노력해왔다.

NEWS

● 천주의 성모 브레시디움 2000차 주회



월남동성당(주임: 정진국 바오로 신부) 천주의 성모 브레시디움은 6월 6일 2000차 기념주회를 가졌다. 다른 브레시디움들도 합동 주회를 하며 축하해 주었다. 천주의 성모 브레시디움은 혼성 브레시디움으로 40여 년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NEWS

● 망경동성당 본당의 날



망경동성당(주임: 이재영 바실리오 신부) 은 6월 9일 제21주년 본당의 날을 맞아 목포 산정동성당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성지순례는 망경 구세주의 모친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도 겸한 행사였기에, 우리나라에서 레지오 마리아를 최초 도입한 산정동성당으로 순례를 다녀왔다. 총 152명이 참여하여 기도드리고 역사박물관과 갯바위도 둘러보았다.

NEWS

● 교구 레지아 2단계 기사교육

치명자의 모후는 6월 15일 거제 국산 천주당과 경화동성당에서 2단계 기사교육을 실시하였다.



◀ 경화·2, 해군 꾸리아



▲ 옥포 1·2 꾸리아

NEWS

이혼을 하고서라도 어머니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은퇴하는 60대 남성입니다. 고향은 서울인데 직장 따라 여기로 내려온 지 어언 35년이 되었습니다. 5남매 중에서 제일 맏이로 자라며 어릴 때부터 특별대우를 받았습니다. 선친께서 나이 50에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자 어머니는 가정의 역할까지 하시며 씩씩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저를 볼 때마다 “자식은 부모 마음 다 모른다.” “네가 어머니를 잘 돌봐야 한다.” “어머니가 진짜 괜찮은 게 아니다. 네가 걱정할까 봐 일부러 괜찮다고 하시는 거다.”라고 하셔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서울에 사는 동생들이 돌아가며 어머니를 보살펴 드렸습니다. 저는 부담감만 가졌지 멀리 산다는 이유로 전혀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본가에만 다녀오면 저의 마음은 항상 복잡했습니다. 장남인 제가 어머니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회갑이 되시면 해부터 명절이면 늘 이 문제로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장남인 내가 불효자다. 동생들에게 면목이 없다. 내가 당장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 하겠어!”

그러나 제 말에 대한 아내의 반응은 “나도 못된 며느리는 아니거든. 오시라고 해도 지금은 안 오실거야. 지금은 아니야. 당신 그 성질에 당장 모시

고 오기만 해봐! 그날로 이혼이야!”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올해 90이시고, 이제는 혼자 지내시기엔 위험하고 불편한 게 많습니다. 동생들은 요양원에 모시자고 합니다. 은퇴를 앞둔 저는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제 속마음을 아내에게 비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시간을 어머니 곁에서 보살펴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바로 요양원으로 모시면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지난 35년간 내내 효도하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사이에서 마음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짐작이 갑니다.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도 크셨군요.

90 노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장남의 아름다운 마음을 존중합니다. 내년 은퇴하고 나서 그토록 바라던 ‘어머니와의 시간’을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고, 동생들에게 진 빚을 갚고 싶은 소망을 꼭 행동으로 옮기시길 권유합니다.

그 시간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아니 몇 년이 되건 길고 짧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성숙한 장남의 모습입니다. 실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어머니 모시는 모든 일은 절대로 아내에게 미루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모신다는 분명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머니 식사 챙기기, 병원 모시고 가기, 산책하기, 목욕 시켜드리기, 말동무 되어주기 등등.

그리고 아내에게 지난 30년간 어머니 모셔오는 일로 스트레스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아내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구체적 계획도 없이 무조건 불만만 이야기했던 일은 아내에게는 폭력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마 아내는 여장부처럼 씩씩하고 생활력 강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아내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남편의 태도가 더 불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때’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어머니도 원치 않을 겁니다. 아내에게 진솔하게 속마음을 표현하세요.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한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곳으로는 여기 내 집도 좋고, 어머니 집도 좋고, 또 다른 조출한 전원주택도 좋습니다. 이혼까지도 결심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마 아내도 정말 필요하고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전쟁터에 나아가는 사제 4

“주님, 주님께 봉사하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원조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불사불멸의 영대를 제게 도로 주시어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영대’를 걸치면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영대는 이스라엘의 목동, 목자들이 수건을 목에 걸치고 다니던 것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목에 수건을 걸치고 손에 긴 지팡이를 짚고 있으면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목자들은 제일 처음 그분을 뵈고 경배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루카복음 2장을 보면 들에서 밤을 지새우며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주님 탄생을 알려 줍니다. 그 모습이 아주 생생합니다.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주교님께서 중요한 전례 때 목자의 상징인 지팡이를 짚고 나오십니다.

목동 그러면 왠지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알퐁소 도데의 소설 ‘별’에 나오는 목동과 스테파니아 아가씨의 낭만이나, 수많은 노래에서 묘사되는 목동의 모습과 달리 이스라엘의 목동은 종종 도둑 떼로 오해받는 처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목자는 자신의 가축이 아닌 남의 가축을 대신 길러주는 하층민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과 들에서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과 강도 떼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이 닥쳐도 결코 양을 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도둑맞거나 죽으면 자신이 변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제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신자들을 맡아 돌보는 목자입니다. 신자 한명 한명의 구원과 멸망이 곧 사제들의 책임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신자들을 돌봅니다.** 목자의 영대를 걸치고서 말합니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일상의 聖心

이제 겨우 이순耳順을 넘긴 나이지만 배움의 시기를 놓친 그는 아직도 한글을 잘 읽지 못한다. 그 탓에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마흔 번이나 쳤고 요즘도 결혼식장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딸을 셋 키운 구두닦이다. 이미 출가한 딸들이 ‘아빠의 전업轉業’을 권해오기도 하지만 “구두통만 메고 나가면 돈을 벌고, 한여름엔 그늘나무 아래에서, 한겨울엔 실내에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며 오늘도 휘파람을 불며 일터로 나간다.

그의 철학은 한글을 모르는 것처럼 단순하고 독특하다. 그는 자신이 걸어가는 날마다의 삶이 ‘거름주기’라고 말한다. “지는요 ~ 사람이 착하게 살면 착한 만큼 이자가 붙고, 악하게 살면 그 반대로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깊은 철학 앞에 누가 그 사람은 한글도 모르는 무식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덕분인지 얼마 전엔 100여 명 지원에 단 1명을 뽑는 직장에 둘째딸이 합격하였다. 그의 큰 입은 더욱 크게 벌어졌다.

지금도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구두통을 메고 뛰어 다니는 그는 한 달에 30만 원 이상씩 불우이웃에 기부를 하고 있다. 그의



영혼의 트랙
교구 가톨릭 문인회

하진형 다니엘 • 수필가

보물 1호는 검정비닐봉지 안에 든 ‘아주 두툽한 기부금 영수증’이다. 한여름 더위가 아스팔트를 달굴 때도 그가 지나간 곳은 시원하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그가 지나간 곳엔 따뜻함이 감돈다.

‘성심聖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①성스러운 마음 ②예수와 성모의 마음”으로 나와 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지고지순한 마음은 우리가 끝까지 추구하고 만들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겠지만, ‘성스러운 마음’은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굳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을 대입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어려운 것은 못 배운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많이 배웠으되 잘못 배운 사람이 많은 탓이다’라는 말에 귀가 기울여진다. 배우지 못했더라도 얼마든지 성심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름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 들풀도 아무 곳이나 자라지만 아무렇게 꽃 피지 않는다고 했다. 어찌면 들풀 한 포기, 구두닦이 아저씨의 새까만 손끝에서 ‘일상의 聖心’이 피어나고 있지 않을까. 올 여름은 많이 더울 거라는데 구두 아저씨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플라타너스 잎이 더욱 짙어지길 기도한다.



교구장 동정

일 시 : 6. 27.(목)~8. 20.(화)
내 용 : 미국 한인천주교회
교포사목 사제 사목방문



직장인을 위한 향심기도(1박2일)

일 시 : 7. 13.(토)10:00~14.(주일)15: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향심기도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배 : 9만 원
문 의 : 055.221.1891



교구·분당



■ 말씀봉사자 종강모임 및 미사

일 시 : 7. 3.(수) 14:00~16: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성경부 055.249.7025~6

■ 신앙대학

일 시 : 7. 6.(토)~7.(주일) 1박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사목국 055.249.7022~3

■ 신학교 지원자 피정

일 시 : 7. 6.(토)~7.(주일) 1박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일 시 : 7. 6.(토)~7.(주일) 1박2일
장 소 : 성혈 영성의 집
문 의 : 청년부 055.249.7065

■ 성경관련자 모임

일 시 : 7. 6.(토) 10:30~12:00
장 소 : 교구청 대강당
문 의 : 성경부 055.249.7026

■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 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 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 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 청년성가집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안내

가 격 : 1만5천 원
문 의 : 청년부 055.249.7065
카톨릭러스친구 검색 : 청년성서모임 성가집 주문

■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 습 : 매주 (화) 19:3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 상 :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 의 :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 교구 내 병원 미사 안내

마 산 : 삼성병원 매주 (금) 18:00
본관 2층 1회의실(접수·수납 창구 맞은편)
창 원 : 파티마병원 매주 (수) 16:00
매 (주일) 09:30 7층 성당
창원병원 매주(수) 18:00 지하 1층
경상대병원 매주(토) 15:00 천주교 원목실
진 주 : 경상대병원 매주(토) 16:00 지하성당



위원회·기관·단체



■ 고성 천사의 집 자원봉사자 모집

기 간 : 상시(평일 및 주말)
장 소 : 고성 천사의 집
분 야 : 용접
문 의 : 055.673.6609, 010.4557.3251

■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미사 안내

일 시 : 7. 7.(주일) 15:00
장 소 : 남성동성당
문 의 : 농아선교회 011.9207.8856

■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이해(미사와 특강)

일 시 : 7. 8.(월) 19:30
장 소 : 교구청 강당
주 최 :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 산 : 첫째 주 (화) 10:30 교구청
창 원 : 첫째 주 (목) 20:10 사파동성당
첫째 주 (금) 10: 30 대방동성당
진 해 : 첫째 주 (월) 10:00 해군성당
진 주 : 첫째 주 (월) 10:00 하대동성당
문 의 :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 정 : 매월 첫째 주 (토)
장 소 :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통영) 대건성당 10:30
문 의 :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봉사자 모집

일 시 : 매월 첫주 (월) 10:00~14:00
장 소 :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문 의 : 055.237.6487

■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내 용 : 식당봉사, 방과후수업(요리, 방송댄스, 볼링)
기 간 : 3월부터 12월
장 소 :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 의 : 055.247.5195~7

베트남 성지순례 전문 북부 순교성지 + 하롱베이 3박5일 110만원~ 중부 성모발현지 + 다낭 3박5일 110만원~ 북부 + 중부 핵심일정 4박6일 130만원~ Point 부산 또는 대구 출발 매일 직항편 보유 창원에서 현지를 직접관리 (교우 인솔자 / 가이드) 본당 신심단체는 물론 및 여러 소그룹 순례 가능 홍콩&마카오/일본/태남/유럽 등 전지역 순례 가능 대표 이승준 요한 보스코 (마산 삼계) 투어찬스 Tour Chance Tel. 055-264-2046 M. 010-2992-4785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39만원 (10월 2일, 인솔자, 신부님 동행) 070-4086-0207 www.catravel.co.kr savin 성악 스튜디오 T. 070. 4384. 8730 blog.naver.com/franz32 조 현 울 프란체스코 마산회원구 양덕1동 주민센터 맞은편 2층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진해시니어클럽 자 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csc.or.kr 055.541.0126, 055.605.6297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T. 055.293.5605
--	--	--	---

수도회 기 타

■ 살레시오회 여름 성소 대피정

일 시 : 7. 19.(금)~21.(주일) 2박3일
대 상 : 중고생 대학일반(35세 이하 미혼 남성)
장 소 : 충남 태안 살레시오 피정센터
문 의 : 010.5159.3949, 010.3894.1332

■ 가르멜산의 성모 재속 맨발 가르멜 회원모집

일 시 : 7. 22.(월) 10:00 매월 3주 (월)
자 격 : 만 50세 이하 남녀
장 소 : 마산 가르멜수도원
문 의 : 회장 010.3847.9632

■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살고자 하는 50세 이하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모 집 : 3월 중~6월/ 해당 지역 전화 요망
창 원 : 010.4542.0347
마 산 : 010.7315.6059
진 해 : 010.8583.4350
거 제 : 010.3807.1618
거 창 : 010.4630.2838
내서·함안 : 010.5006.6254
통영·고성 : 010.2836.7720
산청·함양 : 010.5911.8792
진주하대동 : 010.3009.0650
진주철암동 : 010.2776.2414
진주신안동 : 010.8831.3311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 시 : 매주 (수) 14:00~17:30, 19:30~21:00
장 소 : 중동성당
대 상 : 신자, 일반인
내 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 의 :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는 관광 및 성지 안내와 함께 차량, 호텔, 펜션 예약이 가능합니다.
문 의 : 064.758.6476, 010.4566.6476

■ 양업고등학교 가톨릭 대안 좋은학교 연수

일 시 : 7. 20.(토)~21.(주일) 1박2일
대 상 : 좋은 학교에 관심있는 교사·학부모
접 수 : 홈페이지(7. 10부터 선착순) 043.260.5076
* 2020학년도 입학전형 안내도 겸함.

■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 시 : 8. 2.(금) 13:00~4.(주일) 16:00
대 상 : 중·고·대학·일반 젊은이 (35세 미만)
회 비 : 3만 원
장 소 :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중강당
문 의 : 010.5490.5345, myungkkot@hanmail.net

■ 도박을 끊고 싶으십니까?

매주 정기적인 모임으로 도박질병을 치료하고 도박이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익명의 모임입니다.
한국단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 소 : 월남동성당, 매 (주일) 17:00
문 의 : 담당자 010.9992.3443

농민주일 행사 안내

농민주일(7월 21일)을 맞이하여 농업을 지키고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 마산교구 내 **우리농 생활공동체**에서 모든 물품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가톨릭농민회원이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로 식탁을 마련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외물품 : 연중 10% 할인판매 중입니다.
감자, 양파, 블루베리, 자두, 마늘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7. 1.(월) 19:00	월남동성당	말씀과 성체 안에서 성령과의 일치	이청준 신부(F. 하비에르)	이청준 신부	010-5072-5612
창원지구	7. 1.(월) 19:00	반 송 성 당	새 힘을 부어 주리라	박효철 신부(베네딕도, 청주교구)	박효철 신부(베네딕도)	010-9969-5340
청 년	매주 (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성공로반외방선교회	7. 7.(주일) 10:00	서울돈암동 본부	010-9937-0901	korvocation@columban.or.kr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예,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만원 10월 12일 파티마, 루르드, 바르셀로나 성모발현지 순례 13일 399만원 ▶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봉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	라파엘여행사 9/9 추석특선 이스라엘,요르단 10일 (299만원)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 9일 (299만원) 9/11 추석특선 홍콩마카오 4일 (139만원)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	--	--	--

유사종교들의 활동방식 II

보복 운전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세상이다. 경적으로 주의 신호를 주었을 뿐인데도 뒤를 쫓아와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이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특정한 틀이나 방향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개인주의가 만연해 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사회 구성원 서로를 낯선 존재로 만들게 된다. 이러한 차갑고 건조한 세상에서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

유사종교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 결국 교주를 섬기도록 이끈다.

새로 이사 온 아파트.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해야 한다. 가뜩이나 차
가운 세상에 어느 곳부
터 발을 디뎌야 할지 모

를 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웃이 있다. 아이를 출산한 육아맘(mom). 육아문제가 가장 큰 고민일 때,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된다. 정보를 공유하고, 육아에 지쳐있을 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아이를 기를 힘을 얻게 한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또다시 집안일을 해야 하는 워킹맘(working mom). 누구도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아 우울감에 빠진 그녀에게 누군가의 공감과 위로가 찾아온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무기력한 직장인. 그에게 커피 한잔 건네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회사 동료는 회사에 출근하고자 하는 힘을 내게 하는 동력이 되어준다. 지식인이라 불리는 대학교수. 사회에서는 성공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가정의 어려움은 교수의 명석한 지성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그에게 가족이 해줄 수 있는 위로를 대신하는 지인은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위로해 준다.

어쩌면 유사종교들의 활동은 이러한 아픈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펼치는 선동이지만, 그 선동에 앞서 그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데에 주력한다. 누군가 거리에서 “이만희(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교주), 혹은 안상홍(하나님의 교회 창립자)이 하느님입니다!”라고 외칠 때, 그것을 듣고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다’며 바로 그들을 따르려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먼저 관계를 맺고 다가온

다. 아픈 사회의 단면을 파고들어 그들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 그들이 내미는 손은 자신들의 집단 구성원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만, 그 속뜻을 알기 전 맛보는 위로와 따뜻한 손길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후에는 그 신앙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주위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에 위안과 행복을 얻었으며 이미 굳게 믿게 되었기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투신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종교적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따랐던 신앙이 종교적인 가르침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그들이 내민 따뜻해 보이는 손 뒤에는, 그들 집단의 창시자 혹은 교주를 신(敎主)으로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속임수마저도 신(敎主)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행위에 당위성을 부과하는 그들. 그들이 내민 손을, 그저 따뜻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그들의 모습은 우리를 바라보게 한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마음을 들어보려 했는지, 매주 성당에 나오지만 옆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형제자매님께 따뜻한 인사는 건네 보았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 해주시기를 청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뻗어보았는지,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보았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 그리고 행복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는 다르다. 하느님은 순간으로 멈춰버리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 변하지 않는 영원永遠의 하느님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으로써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갖게 되었고,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보고’(1코린 13,12), ‘그분을 있는 그대로’(1요한 3,2) 보게 되는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참 행복은 모든 선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만 있다. 그분께서는 결코 속임을 가장하고라도 당신을 따르는 사람을 모아오는 것을 바라는 분이 아니다. 당신께로부터 사랑받고 참 행복을 얻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말씀과 성사聖事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때, 유사종교들이 행하는 선전 활동에 현혹되지 않고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하느님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